

네옴 첫 아시아 전시회, 한국서 열린다

-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진행
- 네옴(NEOM)의 콘셉트 디자인을 형상화한 각종 조형물 전시 및 사업 비전 소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네옴(CEO 나드미 알 나스르)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‘네옴* 전시회(Discover NEOM: A New Future by Design)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를 따라 건설 중인 약 26.5천km² 규모의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

- 이번 전시회는 올해 4월 5일에 있었던 원희룡 장관과 나드미 네옴 CEO 간 화상면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된 아시아 첫 전시회로서, 네옴의 비전과 네옴의 중심이 되는 선형도시 ‘더 라인(The Line)**’에 대한 각종 조형물과 영상들이 전시될 예정이다.

* △길이 170km, 폭 200m, 높이 500m의 선형도시, △20분 내 이동이 가능한 교통인프라(지하 고속철), △100% 친환경에너지 사용 등

- 전시는 7월 26일부터 9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, 입장은 무료이지만 온라인 시스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. 입장권 예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네옴측에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, 동 행사를 통해 네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“한국에서 더 라인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, 이번 전시는 네옴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더 라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이번 전시를 통해 사우디의 미래 친환경 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에 대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, 스마트시티·IT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을 알리고 우리 기업과 네옴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”라고 밝혔다.

* 본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네옴 누리집(www.neom.com/en-us/newsroom)에서 확인 가능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우종하 (044-201-3526)
		담당자	사무관	곽인영 (044-201-3530)

